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4년 4월 2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양춘선식품 이웃돕기 성금 기탁-13면	서부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유해조수 피해 잇따르는데 보상 ‘절끔’ ... 농민만 애탄다-10면	-	제주매일
○	사과·배 수출 ‘뚝’ ... 바나나·파인애플· 오렌지 수입 ‘쑥’ -15면	-	제주매일
○	독립적인 사람이라야 예민하다-15면	-	제민일보

(제주매일: 2024년 4월 02일)

○ 양춘선식품 이웃돕기 성금 기탁-13면



양춘선식품, 이웃돕기 성금 기탁

양춘선식품(대표 양춘선)은 지난달 29일 안덕면을 방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3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4.2.

제주매일 13

(제주매일: 2024년 4월 02일)

○ 주간농업농촌소식-4면

주간농업농촌소식

주간농업농촌소식 2024-12호(2024.4.1.)

여건변화 대응 농업현장 중심 실용기술 개발 · 보급

주요 농작물 관리요령 및 병해충 방제정보를 안내합니다

■ 만감류

- 물 20L에 요소(4종복비) 20~40g 7~10일 간격으로 3~4회 엽면시비
- 봄순의 균일한 발아 및 생육 촉진을 위해 매일 10a당 5mm 관수
- 발아기~백화기 온도관리: 천창 낮에 개방하고 야간에 닫음. 측창은 항상 닫음

■ 하우스감귤

- 조기가온 작형: 과실비대를 위해 최고온도 28~30℃, 최저온도 24℃를 40~50일 유지
- 후기가온 작형: 생리낙과 진행중이므로 낙과 상태를 보며 온도를 3~5일에 0.5℃씩 높여줌

■ 양파

- 조생종: 수확 시작되었으나 일조 부족에 따른 비대 지연으로 수확 지연
- 중 · 만생종: 노균병, 잎마름병 등 방제. 총채벌레, 나방 등 예찰 방제

■ 마늘

- 베수 불량한 포장 잎집썩음병, 흑색썩음균핵병, 뿌리응애 발생 방제
- 2차 생장이 전년 대비 약 20일 정도 빠르게 발생

※ 키위 꽃가루 발아율 검사 후 수분하세요

- 운영기간: 3~6월
- 지원내용: 꽃가루 발아율 검사, 꽃가루 자가제조
- 문의: 제주 760-7762, 서귀포 760-7843, 동부 760-7642, 서부 760-7943

- 담당부서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760-7531~3) 4.2.

제주매일 4

(제주매일: 2024년 4월 02일)

○ 유해조수 피해 잇따르는데 보상 ‘찜뚱’... 농민만 애탄다-10면

유해조수 피해 잇따르는데 보상 ‘찜뚱’...농민만 애탄다

매년 피해 사례 행정 접수...민가 인접 포획 활동 사실상 어려워
행정시 자체 예산내 지원...정부 차원 보상제·서식 환경 보호 시급

제주지역 농민들이 유해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손실을 제대로 보상 받지 못해 속만 태우고 있다. 최근 현장 농민들에 따르면 야생동물들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농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해 더덕, 메밀, 월동무, 콜라비, 쪽파, 콩, 보리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양 행정시는 대리포획단을 구성해 멧돼지, 조류 등 유해조수를 포획하고 있지만, 농민들의 인접 포획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해 농작물 피해를 손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체 예산(서귀포시 5억5000만원, 서귀포시 2억원)을 마련해 보험에 가입,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피해 규모의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가 접수한 피해 건수는 지난 2021년 375건(3억7100만원), 2022년 234건(2억9200만원), 2023년 279건(2억7300만원)이다.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건수는 40여건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 85건(1억200만원), 2022년 121건(1억5000여만원), 2023년 7월 기준 35건(3400만원)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발농사를 짓는 서귀포시 안덕면 박모씨는 "까치와 노루가 밭에 심어둔 채소 묘종을 뽑아 먹는 일은 부지기수"라며 "과거 노루가 밭을 헤집고 다녔다 농작물에 피해를 준 사례도 있는데 동물을 생각해서 밭이나 포획틀을 놔서 동물을 잡을 수도 없고 농작물 피해를 손 놓고 보고 있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앞서 도내 농민들은 지난 2012년 말 노루를 야생조수로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안' 통과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요구했고, 2013년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노루 포획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농민들은 "노루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신고액의 경우 지난 2010년 6억여원(218농가)에서 2011년 13억여원(275농가)으로 갑절 이상 폭증했다"고 주장했다.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를 (지방)정부가 일정하게 보상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근본적으로 야생조수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에 콩, 옥수수, 감자 등을 뿌려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생태계를 복원해 천적이나 경쟁자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최병근 기자

(제주매일: 2024년 4월 02일)

○ 사과·배 수출 '뚝'...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 수입 '쑥'-15면

사과·배 수출 '뚝'...바나나·파인애플·오렌지 수입 '쑥'

작년 사과 수출량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올해 더 큰 폭 감소
수요 분산 위해 자몽·아보카도·두리안 등 수입 과일 품목 11개로 확대

올해 들어 국산 과일값 강세에 사과와 배 수출은 급감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은 대폭 늘었다.

정부는 사과와 배 수요 분산을 위해 수입 과일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 대체 과일 집중 공급

1일 관세청 무역통계와 통계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과 수출량은 58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 줄었다.

특히 지난 2월 수출량은 4t에 그쳐 지난해 동월보다 97.1%나 감소했다. 지난해 사과 수출량은 전년보다 62.3% 줄어든 638t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t을 밑돌며 역대 최소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2월 배 수출량도 1372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2.5% 줄었다.

배 수출량은 1월 1078t에서 2월 294t으로 줄었다. 4.2% 수출량은 지난해 동월보다 86.7% 감소했다. 지난해 배 수출량은 2만

4430t으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사과와 배 수출 감소는 이상 기후로 생산량이 대폭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은 39만 4000t과 18만 4000t으로 전년보다 30.3%, 26.8% 각각 줄었다.

사과 생산량은 2011년(38만t) 이후 12년 만의 가장 적다. 지난해 감귤은 관련 통계가 있는 1980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배 생산량은 2020년(13만3000t) 이후 3년 만에 가장 적었다.

이에 반해 수입 과일 대명사인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등의 수입은 대폭 늘었다.

지난 1~2월 바나나 수입량은 6만 2502t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2.6% 늘었고 파인애플은 1만 2610t으로 31.5% 증가했다. 오렌지는 9964t으로 129.6% 급증했다.

정부는 사과와 배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등의 과일을 3~4월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직수입 품목도 바나나, 오렌지, 파인



마트에 진열된 바나나.

[연합]

애플, 망고, 체리 등 5종에서 자몽, 아보카도, 만다린, 두리안, 키위, 망고스틴까지 포함한 11개로 늘리기로 했다.

사과 도매가격 작년보다 118.2% 높아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정부 농축산물 할인 지원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2만4707원으로 정부의 추가 긴급 지원 직전인 15일보다 9.9% 내렸다.

정부는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755억원)과 할인 지원(450

억원) 등에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지난달 18일부터 추가 투입하기 시작했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도 같은 기간 4만5381원에서 4만 1170원으로 9.3% 내렸다.

다만, 사과(후지·상품) 10kg 중도매가격은 지난달 29일 기준 9만2040원으로 15일보다 1.3% 올랐고 배(신고·상품) 15kg의 중도매가격은 11만3200원으로 11.9%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사과와 배 소매가격은 각각 8.0%, 53.1% 높은 수준이며 도매가격은 118.2%, 164.4% 각각 높은 상태다.

[연합]

(제민일보: 2024년 4월 02일)

○ 독립적인 사람이라야 예민하다-15면

독립적인 사람이라야 예민하다

제민포럼



김 용 호
비상임 논설위원

올해 겨울부터 현재까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이틀에 하루 정도로 비가 그칠 줄 모르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토양이 습해서 발작물은 뿌리 발육이 불량하고 또한 부패되거나 질이 낮아질 수도 있다.

하우스 감귤은 5차 낙과가 발생할 정도로 나무에 달린 대부분의 열매가 떨어질 정도로 작황이 부진하다. 기후온난화로 겨울과 봄의 일조시수가 부족함에 따라 광합성 작용이 왕성하지 못해, 과일 비대가 왕성해야 할 시기에 필요한 자양분이 부족하니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떨어트리는 생리작용이 나타난다.

하우스밀감 재배역사상 이런 현상이 목격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노지 밀감과 만감류에서도 이와 유사한 생리낙과와 열과현상이 발생돼 긴장시켰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우스 감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도 예기치 못했다.

앞으로 감귤시설재배에서 어떤 생리현상이 드러나 감귤농사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줄지 모르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리장해가 발생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감귤이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미래 감귤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관행이나 어깨 너머로 커닝한 낮은 지식으로 땀질식 처방을 하는 영농활동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경영은 자동차를 운전하듯 직접 현장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전정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온갖 기술을 투입해 그 결과를 분석·평가해야 된다. 지난해 왜 생리낙과와 열과가 발생했는지, 감귤가적이 왜 고공행진을 했는지, 원인을 찾아 탐구하고 새로운 처방전을 마련해 재배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인 스스로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있다. 온전히 자신으로만 돼 있는 상태, 즉 독립적주체로 우뚝 섰을 때라야 질문이 제기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고독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은 예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개 생각의 결과들을 믿음의 체계로 바뀌어서 그것을 신봉하면서 산다. 이 믿음의 체계만으로 세상과 접촉한다. 이때 인간이 상실하는 자질이 바로 예민함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민함은 가

법고 급하게 반응하는 신경질적인 민감함이 아니다. 인간을 통찰로 이끄는 매우 종합적인 직관의 터전이다. 자신의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성숙한 직관이다. 깊고 넓은 지성이 없이 발동하는 경솔한 반응이나 강한 신념과 믿음에서 나오는 성급한 과감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독립과 예민함의 연관성은 인류 역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인류역사는 주변이 중심을 전복하는 사건들의 기록이다. 주변이 중심을 전복하고 나서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한 후 또 새로 등장하는 주변에 의해서 다시 전복되는 일련의 과정, 이것이 인류역사 전체의 흐름이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극장대처 땀질처방, 대중요법 같은 인과 없는 처방들이 자주 등장한다. 항상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고 사태가 발생해야만 움직이는 습성 때문이다.

역사를 주도적으로 전개해본 경험이 있거나 그럴 의지가 있는 나라는 매사에 좀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제국 차원 혹은 선진국 수준 국가들이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래야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 제주감귤농협조합장>

■ 선제 대응하기 위한 예민

역사를 주도적으로 전개해 봤거나 그럴 의지가 있는 나라는 매사에 좀 과도하다고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제국 차원 혹은 선진국 수준 국가들이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래야 전략적이고 선제적인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2.

제민일보 15